

# 염불·진언이 쌀 수확량 높인다?

### 중국 남동부 푸젠성, 벼농사에 불교음악 들려줘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사람들 마음도 좋아지고 의식도 좋아진다. 음악을 좋아하는 중국의 성인 공자는 음악으로 덕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한 연구결과에서는 음악이 두뇌 능력을 강화해 읽기와 말하기, 외국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 남동부 푸젠성(福建省, 복건성)에서는 음악이 인간에게 유익하다는 것에 착안, 식물에게도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생산량을 높여 눈길을 끈다.

부디스토어인터네셔널(Buddhistdoor Internation)은 “중국 푸젠성 리양산 주민들은 벼에 불교음악을 들려줬더니 수확량이 전년대비 15%나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민들은 26.7헥타르의 논에 설치된 연꽃 모양의 스피커를 통해 진언과 부드러운 선율의 염불을 들려주었다. 그 결과 벼의 낱알의 크기가 더 커지고 벼를 갈아 먹는 해충들도 음악을 틀어놓은 논에서는 벼를 갉아먹지 않고 음악을 틀어주지 않는 논으로 옮겨갔다.

중국농업학과 연구자들은 “진언과 같은



중국 푸젠성 리양산 주민들은 벼에 진언과 같은 불교음악을 들려주어 수확량을 전년대비 15% 증가시켰다. 사진은 벼농사를 짓고 있는 중국인들.

### 부드러운 선율의 염불 들려주기

### 해충들 음악 없는 논으로 옮겨

### “진언과 같은 음파는 공명 일으켜

### 식물이 더 많은 햇빛 흡수하게 해”

특별한 음파(音波)는 공명(共鳴)을 일으켜 식물 잎의 습구멍이 더 많은 햇빛을 흡수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음악을 들려준다고 식물의 생산성이 반드시 좋아지는 것만은 아니다.

지역의 한 농업관리인은 “특정한 음악만이 이런 효과가 있다. 긍정적인 음악은 성장을 돕지만 록(Rock)음악은 오히려 식물

에 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의 저명한 정원사인 크리스 비어드쇼는 2013년 온실 4개에 심은 식물들을 대상으로 음악과 관련된 실험을 한 결과 서로 다른 유형의 음악들은 식물 성장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크리스 비어드쇼는 “블랙 사바스(Black Sabbath)의 요란한 소음과 같은 음악을 들은 식물은 키는 가장 작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도 가장 좋았다. 그리고 클래식과 같이 고전음악을 들은 식물은 음악을 전혀 듣지 않고 자란 식물보다 키는 다소 작았으나 더 많은 꽃을 피웠고 병충해도 더 적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음악을 활용한 식물 생산성에 관

한 다양한 결과가 나온 가운데, 경전의 긍정적인 구절이나, 염불을 식물뿐 아니라 인간에게 들려줌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F.T.트래버스 박사는 산스크리트어로 된 바가바드기타의 구절을 읽어주면 그 뜻을 모르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실험자의 생리능력이 초월명상을 하는 사람들과 비슷해지는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트래버스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같은 구절인데도 현대 언어로 읽어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들의 이 같은 현상은 1973년에 발간된 책 <식물들의 비밀스러운 생활(The secret life of plants)>에서 “식물들은 뇌나 신경조직이 없지만, 심장박동 기록기를 사용한 실험을 통해 식물들이 유형(sentient), 즉 지각력이 있는 존재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부디스토어인터네셔널은 “대부분의 불교 종파에서 식물은 마음이 없다는 이유로 유정으로 간주하지 않지만 이번 연구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며 “중세 일본 조동종 개조인 도겐 선사가 ‘풀, 나무, 땅들은 마음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것들은 중생(sentient being)이다. 중생이기에 불성을 갖고 있다’고 말한 법문을 새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은희 기자

# 캠핑으로 ‘게임 중독’ 막는다

### 쿠알라룸푸르 불교학자들, 2박 3일 캠핑 프로그램 진행



나란다 불교학회의 ‘캠핑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이 2박 3일간 함께 할 팀을 결성하고, 해맑게 웃고 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불교학자들이 비디오 게임 중독에 폭 빠진 아이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나섰다.

<The Star>지는 “나란다 불교학회(Nalanda Buddhist Society)가 비디오 게임 중독 위험이 높은 9세부터 12세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매 휴일마다 2박 3일 간의 ‘캠핑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나란다 불교학회 탄호순(Tan Ho Soon) 학회장은 “아이들이 건전한 휴일을 보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다”며 “매 캠프마다 20명의 아이들이 참여하게 될 ‘캠핑 프로그램’에서 연인과 자비에 근거해 개발한 놀이문화를 선보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9세부터 12세까지 아이들이 참여할 캠핑 프로그램은 팀별 활동으로 진행되며, ‘숲속에 앉아 명상하기’, ‘자연에서 동물 관찰하기’, ‘탐벌로 띄어놓은 풍선 높이, 일정하게 유지하기’ 등으로 진행된다.

“호수에서 많은 새를 보면서 선생님에

게 생소한 새의 이름을 배웠다”는 리시우이(Lee Xiu Yi · 11) 군은 “집이나 학교 근처에서 보지 못했던 물총새, 펠리컨, 홍학 등을 직접 보게 되어서 좋았다”며 “저녁에 선생님들이 들려주시는 ‘부처님 이야기’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짧은 캠핑이었지만 마음의 평온과 불교의 미덕을 배울 수 있었다”는 용 차우스에른(Yong Chow Sern · 12) 양은 “집에서 산만하다는 꾸지람을 많이 듣고 있다”며 “이번 캠핑에서 배운 대로 집에서 생활한다면, 그런 꾸지람은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캠핑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는 옹칭 사운(Ong Ching Saun · 33) 박사는 “당초 걱정과는 달리 아이들이 자연에서 놀거리를 쉽게 찾아내고 즐기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아이들의 게임 중독은 아이들 잘못이라기보다는 ‘좋지 않은 환경’에서 그 원인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게 캠핑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얻은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달라이라마, “티베트 불교 미래 걱정된다”

### 12월 23~28일 남인 문곳 간헐사원서 법회 중 발언

“당신에게 붓다의 가르침과 연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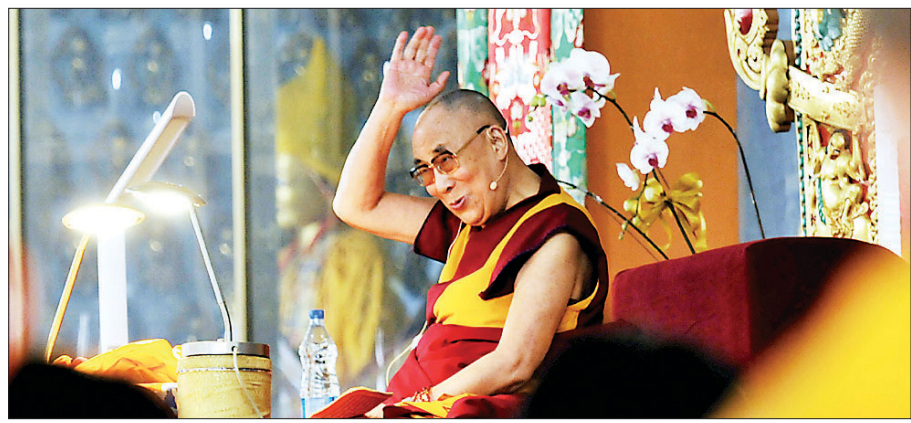
티베트의 정신적인 지도자인 제14대 달라이라마는 12월 23~28일 남인도 문곳(mungod) 티베트 불교 켈룩파 산하 간헐장제사원에서 보리도차제론(법랍) 법회를 주관했다. 달라이라마는 23일 법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후대 달라이라마 환생 제도의 지속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후대 달라이라마 응립에 관한 현안은 이미 지난 8월 독일 함부르크에서의 법문 당시 외신에 의해 보도된 바 있다. 티베트 불교의 켈룩파 소속 승려 4만여 명이 모인 법회장에서 달라이라마 본인이 직접 후대 달라이라마 환생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달라이라마는 “최근 중국 내부에서 현 14대 달라이라마가 가짜이며 실제 달라이라마는 중국 본토에 살고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 불교도들의 진정한 소명만이 원만한 15대 달라이

라마를 현실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켈룩파 내부의 분열을 야기하고 반 달라이라마 시위를 벌이고 있는 ‘숙덴’의 경우는 현재 티베트불교의 분열을 야기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승원 교육 체제에 보다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달라이라마는 “현 14대 달라이라마말로 역대 달라이라마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력한 인지도를 가지고 유명세를 날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많은 불교도들과 지식인들의 신망을 받고 있는 현재의 달라이라마가 임명한 후, 후대 15대 달라이라마의 역량이 미약하여 악명을 남기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달라이라마의 계보에 풀이될 수 없는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달라이라마는 “본인은 그것이 진심으로 우려가 되는 바 달라이라마 환생제도를 14대로 끝내는 것 또한 최선의 방안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신중히 거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달라이라마 응립은 티베트 켈룩파에서 이어져 온 고유의 환생제도로써 까규파의



달라이라마가 티베트불교를 상징하는 황색 모자를 비유하며 티베트 불교 내의 지정 쇠신을 당부했다.

전통에서 차용되었다. 티베트 불교의 승왕을 의미하는 달라이라마는 켈룩의 3대 사원인 대봉 간헐 세라의 사원장과는 독립된 위치에서 티베트 민족을 수호하는 정신적 지도자의 임무를 수행해 왔다.

달라이라마는 ‘바다와 같은 지혜를 지닌 스승’을 의미하며 몽골의 황제 일란 칸이 3대 대봉사원의 사원장에게 존경의 의미로 수여한 것이다. 3대 대봉사원장은 본인이 달라이라마의 호를 처음 수여 받았으나 본인을 1대로 칭하지 않고 본인의 역대 2대

스승에게 존경의 의미로서 달라이라마 호를 각각 올렸다.

현 14대 달라이라마는 1959년 중국의 침공으로부터 대항한 라싸에서의 민중봉기를 시점으로 인도에 망명하여 다람살라에 망명정부를 수립하였다. 370여 년간 이어져 온 티베트의 정교일치 제도 간헐포당을 청산한 달라이라마는 현재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의 직무만을 수행하고 있다.

인도 문곳·기연속 객원기자 omiflow@gmail.com



### 밤새 불 밝혀 성불한 스님 기념

12월 16일은 티베트력 10월 25일인 티베트 불교(라마교)의 ‘관등제(燃燈節, 등을 달고 불을 켜는 명절)’이다. ‘관등제’는 티베트 불교 켈룩파(格魯派)를 창시한 종가(宗喀巴) 승려가 성불한 날이다. 이날, 티베트 불교 승려와 신도들은 수유등(土油燈, 티베트족의 유지방을 넣어 만든 등)에 불을 붙이고 밤새 가리지 않고 불을 밝혀 성불한 승려를 기념하는 동시에 지혜와 행복을 기원한다. 라싸 다자오스의 한 승려가 망원경 모양 관악기인 동첸(티베트식의 긴 나팔)을 불고 있다.

이은희 기자

순례가 시작되는 곳

www.ajetour.co.kr

SINCE1999

아제여행사

AJE

☎.02) 730-4008

{ 구광국대표 010-3048-4008 }

{ 구경모이사 010-2747-0908 }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명상 힐링 여행 히말라야 고요왕국

행복지수 1위! 부탄 8일

출발일: 3월9일/4월21일/5월28일

6월23일/7월7일/8월18일/9월1일

출발일: 3월 9일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바간-헤호-만달레이

출발일: 3월 6일

인도속의 또다른 인도

산인도 10일

출발일: 3월9일

중남미 7개국 17일

과대문명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 하는 곳 신비의대륙

하늘과 맞닿은 영혼의 땅! “리벡 8일”

출발일: 5월7일/28일/6월21일/7월27일/8월30일

인도·네팔 성지순례 10일

2월 16일(살연휴를 부처님과 함께..)

3월 6일 출발일

₩259만

출: 3월29일

구회산·황산·보타산 순례 6일

지장보살(99m),천하비경 황산,남해관음상

★확정★

출: 3월10일

보현보살상주처 아미산 5일

성도,아미산,낙산대불 ₩99만

출발일: 3월09일

발칸3개국 & 동유럽 1개국 8일

크로아티아,보스니아,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출발일: 3월24일/4월21일/5월28일/6월23일

7월7일/8월18일/9월1일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대탑 6일

화엄경 성지

심법계통과 선재동자 구비이야기

출발일: 3월23일

러키, 그리스 9일

이스탄불,카파도키아,파묵칼레 아테네,미오소스

출: 3월11일

화엄5조(두손-지엄-법장-청량국사-규봉종일)

서안,태원,오대산(문수보살)6일

출: 5월29일

수미산·구계왕국 16일

라싸,시가체,마나사로바호수,수미산,구계왕국

출: 6월5일

동티베트불교 야칭스10일

출발가-원/수/규

진정한 티베트수행,만여문의 스님들의 수행처

출: 6월19일

몽골5일(초원문화와 라마불교)

울란바타르-에르덴-테를지

출: 9월초

대만 공승제 5일

중태선사,불광산사,자제공덕회